

## 재즈(Jazz)의 역사적 이해 및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재즈의 영향에 관한 연구

이언주\* · 이연희 · 박재옥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21세기는 젊은 세대들의 영향력이 패션 전체에 깊게 관여되어 현대패션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또 그들이 패션을 주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패션이란 인간의 행위가 과거에 있지만 곧 미래로 직결된다고 하겠고 또 앞으로의 패션분야에 대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최근 패션 트렌드가 20세기 초기 특히 1920년대의 재즈 이미지의 특성과 본질 등을 반영한 패션의 영감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점을 볼 때 젊은 세대들의 패션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보겠다. 20세기 패션의 원류로 폴 푸아레와 아르 데코 패션에 근거를 두기도 하지만 20세기에 본격적으로 재즈가 파급되면서 재즈는 유럽과 미국의 많은 음악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현대의 많은 재즈 뮤지션들은 여러 개의 악기로 화음과 리듬을 능숙하게 조합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음악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재즈의 시작은 1619년 흑인 노예가 실려 신대륙으로 도착한 후부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20년대 이후를 본격적인 재즈의 시작으로 볼 수 있고 이 때부터 대중에게 크게 호응을 받는 음악의 한 장르로써 인정을 받았다. 1917년 뉴올리언즈를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재즈는 초기에는 재즈댄스의 형태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발전, 격식을 차린 밴드에 의한 연주로 그 품위를 유지하였다. 세계 제 1차대전 후로는 재즈가 이미 흑인의 전유물이 아닌 백인들도 많은 사랑을 받아 연주되었다. 1950년대 말부터 록큰롤의 영향으로 재즈연주자들은 전자음악을 도입하여 새로운 형태의 재즈를 표현하기도 했고, 시대마다의 여러 가지 문화와 접목이 되어서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는 문화 전반적으로 복고 열풍이 불면서 문학, 연극, 무용, 미술 등 예술 전반에 걸쳐 재즈가 접목되어 여러 가지 의미로 애용하는 테마가 되기도 했다. 패션 또한 시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대중과 함께 하고 있고 또 그 시대에 유행했던 음악 역시 우리의 문화와 패션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기에 재즈를 연구하여 그 이미지를 현대패션에 적용해 보고자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즈의 기원 및 당시의 배경, 재즈의 역사, 재즈가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 등을 조사한다.

둘째, 미국 재즈를 중심으로 하여 재즈 음악이 패션의 모티브로서 시대별로 어떠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표현했는지 조사한다.

셋째, 현대 패션에 나타난 재즈의 영향을 조사한다.

넷째, 재즈의 여러 가지 내용을 분석한 결과로 재즈 이미지를 주제로 하여 패션디자인을 개발하고 컴퓨터 CAD(Adobe7.0, Prima Vision)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본 연구의 시대적 범위는 재즈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볼 수 있는 1920년대부터 정통재즈의 정착시기로 볼 수 있는 1940년 대 후반까지로 하여 분석하였고, 현대패션에 나타난 재즈의 영향 조사는 1990년대에 유행하였던 '재즈룩'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패션관계의 문헌과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및 당시의 풍속소설, 영화, 뮤직비디오, 재즈 가사, 패션디자인 이론, 대중문화 비평, 음악비평, 장식미술 관계서적 등을 참고하여 시대의 변화와 재즈의 의식을 연구하였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 또한 참고하였고 최근 패션 트렌드와 관련시키기 위하여 패션디자인 정보와 패션관련 연구소의 간행물 등을 참고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즈는 흑인들의 노동요에서부터 파생되어 블루스에 이르면서 재즈의 틀을 이루었으며, 이 때부터 재즈는 변화를 거듭하면서 1917년 미국 뉴올리언즈를 중심으로 흑인만의 음악이 아닌 온 인류의 음악으로 전파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대중매체의 보급으로 1920년대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재즈는 1940년대까지 생활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1920년대 재즈가 인기를 얻기 시작했을 무렵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재즈댄스로 인하여 상체는 밀착시키고 하의 부분은 부풀리는 "재즈수트"가 유행하였다. 1930년대 초반 경제공황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우울했던 시기에 재즈 연주자들은 화려하고 멋진 무대에서 어깨에 각 진 파티복 같은 검정색 드레스 수트 등을 입었다. 1940년대 들어서 백인들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연주되기 시작한 재즈음악은 경직된 모습에 비하여 감정에 호소하는 음악을 연주하면서 느슨해진 분위기를 나타내기도 했다.

1940년대 후반에는 비밥 스타일이 전파되기도 했다. 1950년대에 들어 록큰롤의 붐이 일어나면서 재즈는 매니아들에 의하여 개성을 살리는 재즈로 명맥을 유지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시 부각되기 시작한 재즈는 사회 전반적인 복고풍의 유행과 함께 대중문화에 반영되었다. 1990년대 재즈는 연주자들의 즉흥연주의 기교를 특징으로 하는 리사이틀이 가장 두드러지는 연주의 형태이기도 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특히 미술사조와 패션의 연계성을 접목시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시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요소들과 패션과의 교류에 관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나, 시각을 제외한 청각, 미각, 후각, 촉각 등 다른 감각과 패션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미비하였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다른 감각과 패션의 상호 작용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본 연구는 청각으로 받아들여지는 대중음악의 하나인 재즈를 역사적 발자취를 고찰하였고 또 그 이미지를 응용하여 패션테마를 제안하고 컴퓨터 CAD를 이용하여 디자인개발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즈의 전체 역사를 다루고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두 가지테마로 정하여 디자인전개를 했지만 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시대별 작품전개가 가능하다고 본다. 끝으로 그 외의 다른 음악장르 또한 패션과의 관계를 접목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제안해 본다.